

내가 體驗한 四象醫學

李 載 憲

(慶北 永春堂 韓藥房)

四象醫學은 韓醫學의 歷史以來 우리 民族이 이룬 獨特한 醫學입니다. 四象醫學의 原著名은 「東醫壽世保元」이라 합니다. 四象醫學은 人類를 長壽하게 하는 方法입니다. 이 方法이 大自然 理致에 깊이 묻혀 흘러내려오다가 只今으로부터 九七年前에 東武公 李濟馬 先生 銳智로 發見된 偉大한 韓方醫學입니다.

四象醫學은 哲學과 論理를 基本으로 獨創的 體系로 이루어진 韓方醫學 임으로 理解가 어렵고 用學에 앞서 先行되어야 할 四象體質鑑別法이 또한 어려워 쉽게 活用하지 못함으로 四象醫學을 外面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그러나 四象醫學은 그 精髓를 차분히 研究하면서 이를 活用하고 體驗해 보아야만 비로소 偉大한 眞價를 알수 있습니다.

本人의 四象醫學 入門 動機는 本人이 死境에 이르렀던 胃腸病이 四象方으로 起死回生の 效果를 보고서 부터 입니다. 只今으로부터 九年前 特別한 理由없이 食後 倒飽하고 心胸이滿하며 諸飲食不下 症狀이 發生하여 韓方으로는 古方과 后世方을 다 活用해 보고 洋方으로는 有名 醫師의 診療까지 받아 보았으나 效果는 없고 또 胃腸病에는 第一 좋다는 斷食療法(本斷食日十日間)까지 規定되는 誠心껏 해보았으나 別無效果이고 百方을 다 해보아도 無效하니 살길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四象方을 잘 活用하는 同業 先輩의 勸誘로 涼隔散火湯 數貼 服用에 卓效를 보고 百餘貼에 起死回生하고 其後 오늘까지 數百貼을 服用했습니다 이는 古方과 后世方の 學理로서는 누구나 이 涼隔散火湯이 胃腸病藥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熱性少陽人에게는 이것보다 더 正確한 胃腸病藥은 없으니 四象은 四象대로 別個의 體系의 醫學임을 立證해 주는 것입니다. 本人은 이로부터 四象醫學의 優秀性에 感嘆 아니할 수 없었으며 李濟馬先生의 고마움을 아니 느낄수 없고 李濟馬先生은 나의 生命의 恩人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李濟馬先生의 四象醫學理論이 없었더라면 本人과 같은 不遇한(?) 體質의 사람은 살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四象醫學을 熱心히 工夫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本人이 四象醫學에 좀 눈을 뜨고 나니 過去十餘年間 이 四象眞理를 모르고 지어준 藥은 半數以上이 잘못지어 준것이 었습니다. 四象體質 區分도 없이 큰소리치면서 함부로 남에게 藥을 지어주고 있었던 것을 生覺하니 속스럽고 부끄러운 感을 不禁이 었습니다 또 四象醫學

□ 학 술

의 妙理를 알고 나니 病藥이든 補藥이든간에 四象方文에 根據하지 않고서는 藥을 지어 줄 생각이 나지 않고 醫藥書籍도 四象醫學 系統의 것이 아니면 別로 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古方이나 后世方醫書 內容이 全部 잘못되고 必要없다는 것은 아니고 韓方原理는 古方이나 后世方 醫書에서 取하되 用藥은 四象醫學 理論을 따라 用藥하는 것이 가장 正確한 韓方 用藥方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本人의 胃腸障礙症狀이 어떻게 해서 發病했으며 또 治療는 어떠한 理致로 되었던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平素 님이 每日같이 朝夕으로 먹는 主副食의 飲食物도 까다로운(?) 本人의 體質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로는 남은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補藥도 本人에게는 害가 되고 病原因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本人의 體質은 四象으로 分類하면 脾大腎小者 少陽人입니다. 그러므로 少陽人은 恒時 脾胃에 熱(火)이 過旺하여 恒常 凉冷性의 飲食物이 適當한데도 不拘하고 反對로 溫熱性 食品인 白米, 찹쌀, 감자, 고구마, 꿀, 엿, 고추, 마늘, 파, 양파, 부추, 미나리, 생강, 쑥, 미역, 김, 닭, 개, 염소, 토끼, 오징어, 콩치, 조기, 갈치, 명태, 뱀장어, 마른멸치, 굴, 복숭아, 대추, 토마토 등을 偏傾 攝取하여 害를 보았고 服藥했던 病약과 補藥중에 들었던 溫熱性 藥材인 人蔘, 附子, 當歸, 川芎, 白朮, 黃芩, 肉桂, 乾薑, 砂仁, 白豆蔻, 半夏, 陳皮, 香附子, 山查肉, 益智仁, 杜沖, 巴戟, 破古紙, 小茴香, 川椒, 厚朴, 甘草, 吳茱萸 등의 藥이 害로워서 病原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雪上加霜 斷食으로 體液이 無理하게 빠지고 斷食後 復食(補植) 메뉴까지도 少陽人의 體質에는 全然 맞지 않은 食品인 玄米밥, 감자, 미역, 다시마, 토마토, 당근, 멸치, 꿀 등을 近 一年間 指導先生의 시키는대로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少陽人 體內에는 陰虛火盛의 度는 極에 이르고 下竭腎水하고 上窮脾肺之陰함으로 脾胃之火는 極過旺하여 그처럼 甚한 胃腸障害가 發生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過旺의 불길을 바로 꺼 주는 것은 李濟馬先生의 智慧로 만든 消火의 名裝備 凉隔散火湯이 시원한 찬물을 뿌려주어 타오르던 불길은 瞬息間에 꺼지고 蘇生의 기쁨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本人은 이로부터 今日까지 飲食物은 主로 每日같이 통보리밥에 팔, 밀가루, 배추, 호박, 시금치, 상추, 숙주나물, 우엉뿌리, 오이, 참외, 수박, 돼지고기, 생굴조개, 어름 冷水 등 少陽人 體質에 맞는 것을 바로 먹고 그르쳤던 健康을 回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四象醫學을 研究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本人이 凉隔散火湯 數百貼을 服用하고 살게 되었다고하면 얼른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生地黃, 知母, 石膏가 든 이런 冷性藥을 그처럼 많이 먹어도 泄瀉도 나지 않고 아무탈도 없느냐고 反問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少陽人이란 獨特한 熱性體

質에 局限해서 바로 쓰는 藥이니 當然之事이오 不要근심입니다. 그뿐아니라 涼隔散火湯은 少陽人 體質에 陰虛火盛에서 起하는 病症인 中風熱證, 歷節風, 衄血, 尿血, 便血, 頭, 眼, 耳, 鼻, 舌, 唇, 齒, 咽, 手足 等の 모든 病에도 發病即時 數貼만 쓰면 治愈 안되는 것이 없으니 마치 少陽人에 萬病通治藥과도 같은 廣範圍로 作用을 하는 藥입니다.

위의 涼隔散火湯이란 한 處方藥이 어떠한 理由로 것처럼 廣範圍하게 作用하고 것처럼 正確한 治療效果를 나타낼수 있는가하면 四象醫學은 陰陽虛實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各人象대로 虛則補하고 實則瀉하는 治療法則으로 用藥하기 때문입니다. 四象醫學은 人象만 바로 잡으면 用藥法은 쉽고 病證에 맞추어 正確히 用藥만 해준다면 아무리 重病이라도 速治할 수 있고 百發百中の 效果를 볼수 있는 正確한 治療方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肺大肝小者 太陽人은 陽이 陰보다 實하고 氣가 血보다 多하여 瀉氣하는 藥으로 瀉氣爲主하고 肝大肺小者 太陰人은 陰이 陽보다 實하고 血이 氣보다 多하여 瀉血(淸血)하는 藥으로 瀉血(淸肝)爲主하고 脾大腎小者 少陽人은 陰이 陽보다 虛하고 血이 氣보다 少하여 補血하는 藥으로 補血(補陰)爲主하고 腎大脾小者 少陰人은 陽이 陰보다 虛하고 氣가 血보다 少하여 補氣하는 藥으로 補氣爲主로 用藥하면 速治되고 效果도 正確함은 再言이 不要합니다.

現在 四象體質鑑別法은 人體가 생긴 外部의 模樣과 內部의 各種 特殊性을 望, 問, 聞, 切, 體診(尺度法) 藥診 等으로 觀察해서 鑑別하고 있으나 이들 方法은 어느 것이나 客觀적으로 正確히 捕捉하는 方法은 못되므로 이를 綜合적으로 參考해서 鑑別者의 經驗한 靈感으로 左右로 決定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誤判의 失手가 없을수가 없으니 遺憾입니다.

斯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루 速히 쉽고도 完全無缺한 體質鑑別法이 研究發見 되기를 渴望하는 바입니다

東武公께서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末尾에 『萬室之邑에 一人이 陶則器不足也오 百家之村에 一人이 醫則活人이 不足也니 必廣明醫學하야 架家知醫하며 人人知病然後에 可以壽世保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全世界 人類가 다 四象醫學理論을 배우고 넓혀서 집집마다 活用하여 어릴때부터 自己體質의 長短點을 自己가 미리 알아서 飲食物과 藥物을 바로먹고 壽世保元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難治病中 四象方으로 잘 治愈된 治驗例 그 數많은나 其中 몇가지를 參考로 紹介합니다.

一 本人의 子女中 男兒 十六歲 少陽人 乳兒時부터 中耳炎으로 몸이 고단하거나 發熱만 있으면 再發 또 再發하든것 涼隔散火湯으로 治愈되고 六年째 再發없음

二. 本人의 妹氏女五十七歲 少陽人 蛔腹痛症(俗稱 속아리 가슴아리)으로 二十年間 極甚한

□ 학 술

痙攣性 腹痛症으로 三十代 時에는 年 二三次 發作하다가 四十代 後期에는 月 二三次씩 頻發 하고 百藥 百方이 無效하니 患者는 發作時의 極痛을 참을수가 없애 自殺이나 安樂死를 計劃 또는 懇請할 정도로 死境의 苦痛을 격던中 本人이 四象醫學을 배우고 四象方을 活用하여 六味地黃湯 二貼에 得效 二十餘貼 服用後 發作中止하고 今日까지 八年째 再發없이 健康히 生活하고 있음.

三. 金○○氏 女 六十歲 太陰人

痙腹痛症으로 三十年間 隨時發作 苦生하든 患者 麻黃定痛湯 二十餘貼 服用 治愈後 七年째 再發 없음.

四. 金○○氏 男 五十歲 少陰人

痙腹痛症으로 二十年間 苦生中 患者 白何烏理中湯 二十貼에 一旦治愈 一年後 再發 四十餘 貼 服用后 七年째 再發無함.

『參考』 위의 二三四項의 治驗例는 患者 三人의 病症은 다같이 極甚한 痙攣性 痙腹病症으로 共通되나 治藥은 各自의 體象에 따라 各各 다른 處方藥이 用藥되어 治愈된 好例로 思料 됨.

五. ○○○氏 男 五十歲 少陽人

口眼歪시(顔面神經麻痺) 獨活地黃湯 三十餘貼에 完治됨

六. 申○○氏 女 四五歲 少陰人

病院에서 胃潰瘍으로 診斷받고 數年째 苦生한다는 患者 官桂附子理中湯 二十貼에 治愈됨

七. 李○○氏 男 七十二歲 太陰人

中風卒倒 左半身不隨症으로 患者單獨으로 坐臥不能한 患者 調胃索命湯 調胃升清湯 等 三十餘貼 服用 完治 八年째 再發없이 農事에 從事中임

× 위의 治療에 使用된 四象醫學 處方

涼隔散火湯 生地黃 忍冬등 연교 各 七·五g 山치子 박荷 知母 石고 防風 荊개 各 三, 七五g
六味地黃湯 熟地黃 一五·0g 枸杞子, 山수유 各 七·五g 澤瀉 牧丹皮 白茯苓 各 五·六二g
麻黃定痛湯 의이仁 十一·二五g 麻黃 나복子 各 七·五g 杏仁 石菖포 桔梗 麥門冬 五味子 使君子 龍眼肉 栝子仁 各 三·七五g 乾栗 七개

白何首烏理中湯 白何烏 白朮炒白芍藥 炒桂枝 乾薑포 各 七·五g 陣皮 甘草子 各 三·七五g
獨活地黃湯 熟地黃 一五·0g 山수유 七·五g 伏苓 澤瀉 各 五·六二g 牧丹皮 防風 獨活 各 三·七五g

官桂附子理中湯 人蔘 一一·二五g 白朮 乾薑포 官桂 各 七·五g 白芍藥 陣皮 子甘草 各 三

·一五g 附子포 三·七五~七·五g

調胃속命湯 의이仁 乾栗 各 二·二五g 나복子 七 五g 麥門冬 石菖滿 桔梗 麻黃 各 三·七五g

調胃升清湯 黃苡仁 乾栗 各 二·二五g 나복子 五·六二g 麻黃 桔梗 五味子 石菖滿 遠志 麥門冬 天門冬 山茛仁 龍眼肉 各 三·七五g

감각

푸른 여름 저녁에 오솔길 가리니
보리 향기에 취하여 풀을 밟으면
마음은 꿈꾸듯, 발걸음은 가볍고
맨 머리는 부는 바람에 시원하리라

아무 말없이, 아무 생각없이
가슴에는 한없는 사랑만 가득안고
멀리멀리 방랑객처럼 나는 가리니
연인과 함께가듯 자연속을 기꺼히 가리라.

- 프랑스 . 랭보 -